

한국종합기술, 1분기 매출액 518억 원 “전년동기비 16.5% ↑”

- ▶ 수주 확대 및 EPC 프로젝트 본격 진행에 힘입어 매출·이익 동반 성장
- ▶ 공공사업 넘어 신규 시장 창출 및 친환경 신기술 활용해 성장동력 강화

<2020-05-15> 종합 엔지니어링 기업 한국종합기술(023350, 대표이사 이상민)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액 518억 원, 영업이익 4.8억 원을 기록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.

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16.5%, 영업이익은 299% 증가했다. 지난해 수주한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며 호실적 시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. 실제로 부천연료전지, 삼영 E&E 소각열 EPC(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, 설계/조달/시공)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매출로 인식됐다.

회사 관계자는 “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비대면 작업 방식이 가능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을 적게 받았다”며 “매출 볼륨 확대 및 비용 통제를 통해 실적이 개선돼 고무적”이라고 덧붙였다.

한국종합기술은 올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본격 추진해 성장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. 공공사업을 넘어 민자, 운영·관리(O&M), 총괄사업 관리(PMC) 등 다양한 부문의 시장을 창출하고, ‘바이오리액터 공법’, ‘바이오가스 에너지화’ 등 자체 개발한 핵심 친환경 신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겠다는 각오다.